

내가 최고다,
한국문학 대표작가들의
「장외 열전」



이문열

황석영



김구용

조성기

올 여름 삼국지 시장이 유례없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문열이 평역한 《삼국지》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황석영의 《삼국지》가 나왔고 김구용의 《삼국지》가 30여 년 만에 재출간됐기 때문이다. <출판저널>은 《삼국지》 국역의 역사와 양상을 짚는 동시에 각 작가의 《삼국지》 국역본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삼국지 시장의 판도를 예측해 본다.

박태원부터 황석영까지, 《삼국지》 국역의 역사

지난 7월 창작과비평사에서 출간된 황석영의 《삼국지》를 두고 출판계는 10년 넘게 고착화된 《삼국지》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개의 출판 전문가들은 지명도 있는 대작가인 황석영의 《삼국지》가 기존 삼국지 시장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수호지》《서유기》《금병매》와 더불어 중국 4대 기서에 속하는 《삼국지》는 한국 단행본 출판시장에서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품이다. 조조, 유비, 손권, 제갈량, 관우, 장비, 여포, 동탁, 마초, 주유 등 난세를 풍미했던 영웅들을 내세워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갈등을 장중한 스케일 속에 담아낸 작품 고유의 매력은 《삼국지》를 단일 단행본 상품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지는 상품으로 만들었다. 출판 관계자에 따르면 삼국지의 1년 시장 매출규모는 어림잡아 150억 원 이상이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동영상, 게임 CD까지를 포함하면 이 시장규모는 상상을 불허하는 규모로 늘어난다. 따라서 《삼국지》 판본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들은 저마다 '삼국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밀한 홍보 전략을 세우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삼국지》가 일반 독자들에게 읽히기 시작한 건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비, 현덕을 중심으로 한 한·한왕조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공명의 지략, 유비·관우·장비의 결의 등은 유교적 이념을 국시國是로 삼았던 조선 왕조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관우의 장한 의기와 절개는 민간신앙으로까지 발전하여 관제교關帝教가 생겨나고, 관제묘關帝廟가 곳곳에 세워지기까지 하였다.(출전 두산 동아 대백과사전)

조선시대까지 사대부 등 일부 선택된 독자들에게 읽혔던 《삼국지》가 대중출판물로 국역돼 본격적으로 사랑을 받은 것은 신문학기의 소설가 박태원이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소개하면서부터다. 일제암흑기 《삼국지》는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는 조선민중에게 작지 않은 오락과 위안을 주었다. 《삼국지》 뒤에 붙는 '연의'는 사실을 각색한 이야기라는 뜻이다. 해방 후에는 역사소설의 대가 박종화, 《비호》《정협지》 등 무협소설로 일반 독자를 사로잡았던 김광주, 《자유부인》으로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라선 정비석, 그리고 김동성과 최영해 등이 저마다 새로운 관점과 해석으로 《삼국지》를 국역, 출간한 바 있다.

《삼국지》의 오랜 독자들이 기억하는 《삼국지》 텍스트는 대개 박종화 판본과 최영해 판본, 서인국의 판본이다. 서인국의 판본은 일본 작가 요시카와 에이지의 작품을 대본으로 삼아 재구성한 것인데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축약본인 셈이다.

이문열과 황석영의 《삼국지》 그리고 그 외의 국역본

《삼국지》가 실수요를 양산하면서 확고하게 독자적인 시장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1988년 5월 민음사에서 이문열의 《삼국지》를 펴내면서부터다. 평역이라는 말처럼 이문열의 《삼국지》는 이문열 특유의 작가적 기지와 상상력을 통해 《삼국지》의 복잡한 서사구조를 명쾌하게 길라잡이했다. 이문열의 《삼국지》는 지금까지 대략 1,500만 부 가량이 판매돼 한국 출판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중이다. 매년 1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초특급ミリ언셀러인 셈이다.

이문열 특유의 화려한 문체와 의고적 필치는 많은 독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독자들이 이문열 소설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민음사 관계자는 “등장인물에 대한 재해석과 인물간의 첨예한 갈등을 소설적인 감성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문열의 《삼국지》는 유장한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간결하게 잘 읽힌다는 강점이 있다. 유비와 조조의 대립을 천편일률적인 선과 악의 대결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조명한 점, 천재 지략가 제갈량에 대해서도 관우에 대한 콤플렉스 내지는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여러 차례 관우를 견제한 사람으로 묘사한 점 등도 그 전의 《삼국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

로운 해석이다. 이문열 《삼국지》가 폭발적인 판매고를 올린 데는 대학입시에서 논문시험 대비용 필독서로 《삼국지》가 권장된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 면에서 이문열과 문학적 입각점에서 있는 황석영이 《삼국지》를 펴내 이 두 작품 간에 정면 승부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삼국지》를 둘러싼 두 작가의 전쟁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작가의 자존심과 더불어 한국 단행본 출판사를 대표하는 출판명가 민음사와 창작과비평사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지닌다.

창작과비평사는 황석영의 《삼국지》가 불황에 빠진 출판계의 숨통을 틔여주는 활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황석영이 《삼국지》를 집필할 때 창작과비평 백낙청 편집인이 직접 나서 작가를 독려했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걸 보면 이 작품에 거는 창작과비평사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황석영 《삼국지》는 이문열 《삼국지》가 평역인 점을 감안, 작가의 주관과 판단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정본'에 가깝게 구성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황석영 씨가 원전으로 삼은 것은 나관중의 원판에 가깝다는 상해 강소고적 출판사의 《수상삼국연의》다. 원전에 등장하는 한시 210수를 모두 번역해 실은 것도 황석영 《삼국지》의 특징이다. 《장길산》 등에서 보여준 황석영 특유의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문장도 흡인력이 있다. 황석영은 출간 직후 "나름대로의 신명을 얹어 좀더 박진감 있게 표현하려 했고, 과거형이 아니라 눈앞에서 진행되는 듯 느낄 수 있도록 현재형 문장으로 다듬기도 했다"고 말했다. 등장인물들의 해석에서도 황석영의 《삼국지》는 차별화를 시도한다. 승승장구하는 전투 영웅이나 역사적으로 정통성을 부여받은 조조보다는 중국 민초들에 의해 영웅으로 탄생한 유비 관우 장비에 무게를 둔 것이 그것. 황석영의 《삼국지》에는 독특한 화풍을 자랑하는 중국의 왕홍시 화백이 그린 120여 장의 삽화와 35장의 지도도 첨부됐다. 등장인물에 대한 해설과 각종 병장기, 관련 유적에 대한 자료를 모은 〈즐거운 삼국지 탐험〉이라는 부록도 붙여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창작과비평사 측은 출간에 앞서 온라인 서점에서 실시한 예약판매 이벤트에서 800질(8,000권)이 팔린 사실에 무척 고무돼 있다.

한편 1970년대 처음 출간된 이래 원문에 가장 충실한 국역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적지 않은 고정 독자를 거느렸던 김구용의 《삼국지》도 최근 솔출판사에서 재출간됐다. 시인이자 한학자인 김구용이 국역한 《삼국지》는 청나라 때의 모종강이 정사를 바탕으로 나관중 원작을 개정한 세칭 '모본毛本'을 원본으로 삼았다. 김구용은 장장 20여 년에 걸쳐 까다롭기로 잘 알려진 원문을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완역하는 열정을 기울였다. 김구용 국역

《삼국지》는 "원문의 서사적 스케일이나 문학적 특성을 담박하면서도 칼칼한, 화려한 치장 따위가 없으면서도 유장한 우리말 문장으로 온전히 되살려냈다"는 측면에서 독자적인 매력을 가지는 작품이다.

《홍루몽》《난세지략》 같은 대하역사소설을 쓰기도 한 이상문학상 수상작가 조성기도 《삼국지》 국역 작가 리스트에 포함된다. 열림원에서 나온 《삼국지》 서문에서 조성기는 "우리나라에 《삼국지》라는 책이 넘치는데도 《삼국지》가 없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 있다"면서 먼저 국역된 《삼국지》들을 비판한다. 중화민국 삼민서국에서 출간된 《삼국지연의》 제11판을 원본으로 삼아 국역한 조성기의 《삼국지》는 속도감 있는 하드보일드 문체로 씌어진 원본의 문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확하고 신속한 전개에 비중을 뒀다. 한글세대 청소년들을 배려해 어려운 한문을 배제해 한문이 전혀 없는 최초의 성인용 《삼국지》를 만들어낸 점도 다른 국역본들과 변별되는 부분이다.

한편 현재 신문 연재중인 장정일의 《삼국지》는 연말쯤 김영사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개성적인 문체와 상상력을 갖춘 장정일의 《삼국지》는 기존 《삼국지》 국역본들이 보여준 사관 자체에서 탈피, 《삼국지》에서 '중화 중심주의'를 걷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와 작가들에게는 사활을 건 치열한 전쟁이겠지만 다양한 판본의 《삼국지》 국역 출간은 독자들로서는 즐거운 일이다. 각기 다양한 《삼국지》들을 입맛에 맞게 골라서 읽을 수 있으니 말이다. 과연 《삼국지》의 승자는 누가 될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올 여름 《삼국지》가 펼쳐주는 장엄하면서도 웅혼한 세계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

취재 김도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